

농공분야의 세계화와 ICID 총회



최 중 대
강원대학교 / 교수
jdchoi@kangwon.ac.kr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농공학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인 식량의 자급을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보릿고개가 일상이던 1950년대까지의 심각한 식량부족을 단 50여년 만에 극복하는 경이로운 발전의 주역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축적된 기술과 압축된 경험, 그리고 국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농공학 기반의 농업·농촌개발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전수할 때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소중한 개발경험과 기술을 세계화하여 국가를 홍보하고, 국익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식량기지확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위키백과에서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민

족과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가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을 뜻한다. 우리나라 농공학의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 농공학의 단일한 체계와 상호의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농공학의 세계화에 2014 ICID Congress(광주광역시 개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한국 농공학의 과거와 현재, 농공학 분야 국제학회의 관심분야, 2014 ICID Congress, 세계화의 고려사항 등을 고찰하고, 한국농공학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2. 한국 농공학의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의 1900년대 이후 농공학은 5개의 시대별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박재순, 2012). ① 1900-

1945 사이는 근대적인 수리사업이 전개되며 또한 수리 조합이 설립되어 농민 스스로 농업용수관리체제가 도입된 시기이다. 주로 일본의 식민지배 시대이었지만 낙후된 농업기반의 근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던 시기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농업기반 근대화는 주로 일본 식민주의자의 식량수탈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암울한 시기이었다. ② 1946-1969 시기는 해방 이후 가난과 식량난의 극복을 위한 수리사업이 전개되던 시기이었다. 농업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홍수와 가뭄 등으로 매년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정비와 개간사업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③ 1970-1989 시기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추진과 지속적인 농업기반사업의 확충으로 주곡인 쌀의 자급을 달성한 시기이다. ④ 1990-1999 시기에는 농업생산기반의 투자와 정비의 강화로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쟁력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WTO에 대비하기 위한 영농의 규모화와 농어촌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⑤ 2000-현재까지는 사람과 농업과 자연이 공존하며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개발, 개발일변도로 훼손된 자연과 생태환경의 복원, 그리고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시설농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①과 ② 시기는 식민지배와 해방 후 국가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해 본격적인 농업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③ 시기부터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국가의 재정이 확대되어 농어촌개발투자를 위한 여력이 있었고, 농공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잘 살아보자는 시민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활발한 농업개발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5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농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농촌의 현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성공적인 농업개발은 전세계에서 유일하다. 우리의 농공기술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낙후된 기술과 여건에서 가장 진보된 농공기술로 발전하며 농촌·농업개발을 선도하였다. 농업과 농촌의 선진화와 함께 자연생태계를 복원, 보호 및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학이론 중심의 농공학에서 공학과 환경기술이 종합되는 현대의 농공기술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농공학자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며 다른 어느 나라의 기술자도 경험하지 못한 축약적인 개발경험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에서부터 최고의 첨단기술까지 폭넓은 농공기술을 보유하고 되었다.

3. 농공학 분야 국제학회의 관심분야

우리나라 농공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농공 관련 학술단체의 관심분야와 우리의 관심분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기술교환, 개발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공동으로 도모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농공분야 학회로 일본농업토목공학회(JSIDRE), 미국농공학회(ASABE), 세계농공학회(CIGR), PAWEES,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등과 관심분야를 비교하였다. JSIDRE는 우리의 농공학회와 유사점이 가장 많은 학회이다. 반면에 미국농공학회는 농업기계와 농업토목이 연합되어 있어 우리와 공통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er & Machinery • Soil & Water • Food & Process Engineering • Structure & Environment • Information & Electrical Technolo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수리 ▷ 지반 및 농지공학 ▷ 농업시설 및 구조 ▷ 농촌개발 및 관광 ▷ 지역환경 ▷ 농공선진화 교육
---------------------------------------------------------------------------------------------------------------------------------------------------------------------------------------------------------------------------------------------	-------------------------------------------------------------------------------------------------------------------------------------------------------------

표 1. ASABE와 농공학회의 전문위원회

사가 가장 크지 않은 학회로 볼 수 있다. JSIDRE는 우리와 공동관심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농공 전문가와 협력하고 공동으로 국제화에 참여하는데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미국농공학회(ASABE)는 인간필수적인 음식, 물, 섬유, 목재, 신재생에너지 등을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며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한 학술 및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학회는 이들의 생산, 운반, 저장 및 사용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과 홍보에 서로 협력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며 또 사람, 가축, 야생동물 및 자연자원이 공존할 수 있는 지구촌을 건설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and Water • Structures and Environment • Plant Production • Energy in Agriculture • System Management • Bioprocesses • Information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수리 ▷ 지반 및 농지공학 ▷ 농업시설 및 구조 ▷ 농촌개발 및 관광 ▷ 지역환경 ▷ 농공선진화 교육
--------------------------------------------------------------------------------------------------------------------------------------------------------------------------------------------------------------------------------------------------------------	-------------------------------------------------------------------------------------------------------------------------------------------------------------

표 2. CIGR과 농공학회의 전문위원회

고 있다. ASABE는 표 1과 같이 우리 농업토목과는 다른 견지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계와 식품공학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는 우리의 농공학 분야와 관심사가 같다. 이는 서로 공동의 협력과 공동의 연구분야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농공학회(CIGR)는 공학과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농촌의 전원풍경을 창출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CIGR의 관심분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물생산, 에너지, 그리고 생물공정 분야는 우리와 다소 거리가 있으나, 나머지 분야는 우리 농공학회의 관심분야와 유사하다.

PAWEES(Paddy and Water Environmental Engineer's Society)는 일본, 한국, 대만의 농업수자원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2001년도에 창립한 국제적인 농업수자원, 관개배수, 환경 등을 포함하는 학술전문학회이다. PAWEES는 여타 국제학회와 다르게 전문위원회를 두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개최되는 국제학술발표회의 주제는 비슷하다. 2014년 학술발표회의 주제는 아시아 몬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과 환경관리(Sustainable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Monsoon Asia)로 우리 농공학의 농업수리, 지역환경과 동일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PAWEES의 키워드는 Sustainable Development, Water, Ecology, Environment, Rural Society, Paddy, IWM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Droughts, Flood, Risk management 등으로 우리 농공학회의 활동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PAWEES 소속 일본의 전문가들이 국제적인 학술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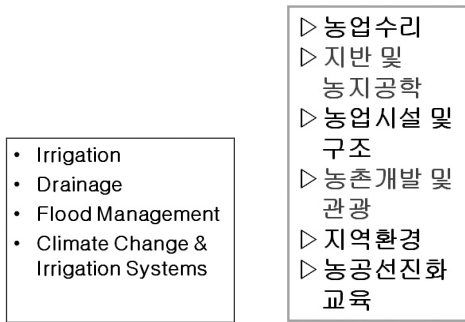


표 3. ICID와 농공학회의 전문위원회

조사연구, 개발 및 공적원조(ODA) 자문 등 우리의 농공학이 세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공동으로 세계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는 공학, 농업, 경제, 생태, 사회과학분야의 경험, 과학, 기술을 장려하고, 개발하며 또한 현장에 적용하여 관개, 배수, 홍수관리를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용수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ICID는 여타 국제학술단체의 창의적인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학술발표와는 달리 지역에 따라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적정기술을 적용하는 응용기술에 중심을 두는 활동을 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CID의 관심분야의 숫자는 작을 수 있으나 우리의 관심분야와 매우 잘 일치한다. 그리고 ICID의 각 관심분야의 적용범위는 그 어느 학회의 전문분야보다

넓다는 생각이다. 특히, ICID는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고위공무원의 참여가 활발하여 우리의 농공학이 세계화하는데 많은 정보와 자료를 습득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학술단체와는 달리 이들 국가의 농업수

자원 분야 고위공무원이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우리의 농공학 분야 전문기술을 세계화하고,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하며,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대상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제적 지원여력(예, 공적원조 규모)뿐만 아니라, 협력대상 국가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들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협력이 없이는 기술과 경제여력이 있어도 세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ICID는 농공학 분야 세계화를 위한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농업토목공학회(JSIDRE), 미국농공학회(ASABE), 세계농공학회(CIGR), PAWEES,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등의 국제적인 농공분야 학회와 우리 농공학회의 전문분야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농공분야가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농업수자원 관리, 농업과 농촌개발과 관련된 기술과 경험 등이 많다. 이와 같은 우리 농공학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공학을 세계화하는데 2014 광주 ICID Congress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2014 광주 ICID Congress(총회)

2014 광주 ICID Congress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학술발표를 중심으로 하는 Congress(9월 14-16일)와 전문분과위원회와 회장단 회의(9월 17-20일)로 구분할 수 있다. Congress에서는 각 주제별 논문 발표, 토론을 통한 결론의 도출 등 일반학술회의와 유사한 활동이 전개된다. 다만, ICID Congress에서는 저자가 단순히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지

- 전략과 조직 상임위원회 (PCSO - 6개 WG)
AFRWG, ASRWG, ERWG, C-CONGR, WG-PYF, WG-IDSST
- 기술상임위원회 (PCTA - 18개 WG)
WG-DRG, WG-ENV, WG-PR&P, WG-SDTA, WG-CLIMATE, WG-HIST, WG-DROUGHT, WG-WATS
WG-ON-FARM, WG-CAFM, WG-CROP, WG-PQW
WG-POVERTY, WG-BIO-ENERGY
EB-JOUR, TF-WWF7, TF-FIN, TF-VE
- 재정상임위원회 (PFC - 5개 소위원회)
CO, MB, SC, MT-JOUR

표 4. ICID의 상임위원회와 WG

않는다.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세션 좌장이 각 세션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종합하고 요약하여 결론을 우선 도출하고 이를 발표한다. 그리고 각 논문저자와 방청객은 좌장이 작성한 결론에 대한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각국 정부, 유엔기관, 회사 등에 제안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다소 특이한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우리가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책제안이 각 회원국 정부나 유엔기관에 전달되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14 광주 ICID Congress의 주제는 “기후변화 하에서 식량과 지역개발을 위한 물 안보(Securing water for food and rural community under climate change)이다. 이 주제로 Question 58, Question 59, 스페셜 세미나, 스페셜 심포지엄, 개도국 초청 라운드 테이블 미팅, 농업장관초청회의 등 학술활동뿐만 아니라 정책개발과 세계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농공분야 선진 기술과 제품의 소개와 함께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함께 개최되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 2017 : ?
- 2014 : 기후변화 하에서 식량과 지역개발을 위한 물 안보
- 기후변화, 물 안보
- 2011 : 물 생산성과 식량안보 - 물 생산성, 식량안보
- 2008 : 참여형 통합물관리 - 물지속성
- 2005 : 식량과 환경 지속성을 위한 물과 토지 이용
- 식량, 환경 지속성
- 2002 : 물 부족, 인구증가, 환경압력 하에서의 식량생산
- 식량안보
- 1999 : 새천년의 농업우수 - 물 지속성
- 1996 : 관개농업의 지속성 - 물 지속성

표 5. ICID Congress의 주제변천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시회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농공분야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첨단 및 적정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공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총회도 다른 총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현장견학(Technical tour)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 현장견학에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성공적인 영산강 농업개발 현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장견학과 전시회는 농공분야에 확실한 개념이 부족한 각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현장견학뿐만 아니라 농공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CID 총회의 특이한 사항 중의 또 하나는 Working Group(WG)이라 불리는 전문소위원회의 활동이다. 일반적인 국제회의에서 소위원회는 학술발표의 부대행사로 간주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크게 독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ICID에서는 소위원회인 WG의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WG 회의는 매년 활동목표와 활동내용을 회의시마다 점검하며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조

- 논문제목에 수록된 단어 숫자(355편) : 약 1400개
단어 사용 빈도 (10회 이상)
- 100회 이상 : Water 145, Irrigation 114
 - 60-50 : Climate 60, Change 58, Agriculture (al) 51
 - 30-50 :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Effect(s), Study
 - 20-30 : Model, Paddy, Drainage, Soil, Analysis, Reservoir, Field(s), Area(s)
 - 10 : River, Efficiency, Use, Rural, Rice, Evaluation, Quality, Assessment, Drought, Watershed, Flow, Impact, Basin, Estimation, Dam, Flood, Resources, Methods, Reduction, Impact, Land, Global, Saemanguem, Characteristics, Pollution, Productivity, Project, Scale, Small
 - Keywords 5개 : Water, Irrigation, Climate Change, Agriculture, Management

표 6. ICID Congress 논문제목의 Keyword 분석

사 및 회원간 협력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WG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취합되어 상임위원회 결론으로 도출되고, 최종적으로는 ICID Congress 결론에 포함되어 각 회원국 및 유엔기구에 기술 및 정책 제안으로 배포된다. WG의 멤버는 회원국가 당 1명, 유엔기관의 회원, 그리고 종신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회원국 당 1명의 회원이 선임되나 회의시에는 누구나 옵저버로 참여하여 의견도 피력하고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처음으로 WG 회의에 참석하면 과거부터 내려오던 내용을 검토하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토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WG 회의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며 또한 결론이 도출되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학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광주 총회에서도 학술발표회에만 참석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WG 회의에 많이 참석하여 우리의 농공기술이 세계화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ICID Congress의 주제변천(표 5)을 보면 ICID 학술 및 정책제안 활동은 농업용수 수자원의 지속성, 식량안보 및 물 안보에서 기후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앙에 대비하며 충분한 식량생산과 지역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4 광주 ICID 총회에 제출된 논문제목을 핵심어(keyword)로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물, 관개, 기후변화, 농업 및 관리로 우리 농공기술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상을 고려할 때 ICID 활동과 우리나라 농공학의 활동은 동질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우수한 농공기술을 세계화하는데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ICID 회원국 참여자들과 공통의 관심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공통의 관심사가 많으면 서로의 대화가 많아지고 돈독한 친분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ICID는 우리의 농공학이 세계화하는데 이와 같이 매우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런 좋은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기술의 세계화에 앞서 인간관계의 세계화가 중요함을 의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와 개발도상국 고위관료들이 좋은 친구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때 우리 기술의 세계화는 아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농어촌공사, 대학, 사업기관(회사) 등의 모든 농공기술자와 관계자는 광주 ICID 총회를 우리의 우수한 농공기술의 홍보와 함께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5. 세계화의 고려사항

농공분야에서도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의 개발경험, 기술력 및 공적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야 한다. 세계화는 경제적, 과학기술적,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 권력의 산물일 수 있으며 또한 경제강대국 중심의 세계재편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세계화는 거대한 자본, 기술, 그리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점적인 경제와 기술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스마트폰, 전자부품,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종자 등 세계화로 점점 더 거대해지는 대표적인 사례도 많이 있다. 세계화의 결과는 개인간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켜, 세계화는 향후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로 회귀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과거 왕조시대에 사용되던 Royal Family(왕족)이라는 용어가 대기업 가계에 부담없이 사용된다는 것은 이미 평등한 민주사회에서 부분적이거나 과거의 계급사회로 재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계화로 농공분야를 선도할 수 있어야 우리의 농공분야가 정체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공학이 세계의 농공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독립적인 분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공분야의 전문가에서부터 학생에까지 모든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공동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농공분야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술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경청하는 것보다 토론할 수 있는 곳에서 토론을 하며 개발경험과 기술력을 홍보하며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논문발표나 경청으로는 이해와 신뢰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ICID WG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내용을 경청하고, 지원하고, 자신의 의견피력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친분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CID와 주제가 유사한 JSIDRE, ASABE, CIGR, PAWEES 등의 학회에 참석하고, KOICA, 농어촌공사, 농림식품부, 대학교 등의 국제농촌개발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WB와 ADB 등 국제기구의 국제공동연구와 연수에 참여하는 방법도 세계화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화를 위해서는 농공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즉, 국내외 학회활동, 학술발표회, 조사연구 및 연수프로그램에 스스로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국제화에 빠르게 동참할 수 있다.

6. 한국농공학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우리의 농공학은 국제학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



그림 1. 한국농공학의 세계화 기회요인

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성장경험, 선진농업기술, 인재와 자본, 수출노하우, 그리고 넓은 배후시장까지 세계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이와 같은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여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외식량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기회요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의 하나가 2014 광주 ICID 총회이다.

멍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말도 있다. 농림식품부, 농어촌공사, 대학의 농공학과, 농공계열 회사는 멍쳐서 서로 도와야 한다. 현대 생활은 모두가 바쁘다. 바빠서 가족도 돌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일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농공분야가 멍치지 못하고 있다. 멍치지 않아도 개별기관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멍쳐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사업기관은 각 기관 (이해당사자)별로 그 특성이 다르고 또한 역할이 다르다. 농공분야의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개발과 참여는 어느 한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ODA나 국가예산으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능하면 농공분야의 이해당사자들

을 공동참여자로 포함시켜 국가아젠다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실무자 및 지도자들과 이번 광주 ICID 총회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또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세계화에는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014 광주 ICID 총회를 계기로 농공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세계화의 시동을 걸 것을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1. 박재순, 2012, 한국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농어촌공사와 농공학의 역할. 한국농공학회 특강발표자료
2. ICID 2014 congress 사무국, 2014, 2014 ICID 광주총회 준비현황 및 계획
3. 최종대, 2014, 농공분야의 세계화와 ICID 총회 발표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공학관련 초청토론회. 2014. 6. 27.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 미국농공학회 홈페이지, 2014, www.asabe.org
5. 일본농업토목공학회 홈페이지, 2014, www.jsidre.or.jp
6. PAWEES 홈페이지, 2014, www.paweess.net
7. 세계농공학회 홈페이지, 2014, www.cigr.org
8.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홈페이지, 2014, www.icid.org